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 속으로

(14) 광주시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미술선생님 오실 날 기다리는 보육원 아이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아동 보육 시설 형태 사에 살고 있는 윤수민(A초 2년)은 멋진 화가가 되는 게 꿈이다. 얼마 전에는 미술대회에서 입상, 상품으로 그림 물감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수민이는 요즘에 매주 월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림을 함께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14일 형제사 강당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생 10명이 웅기웅기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느라 부산했다. 이날 아이들은 '날씨'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부끄럽지만 성준이의 도화지엔 비가 오는 여름날 풍경이 한가득이다. 참빙참빙 소나기 오는 길을 걷는 아이와 꽃잎에 맺힌 물방울까지 묘사한 그림이 재밌었다.

"물방울까지 세심히 표현한 걸 보니, 성준이는 관찰력이 참 뛰어나구나. 그림도 참 잘 그렸어. 우리 성준이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난 것 같아. 앞으로도 열심히 그려라."

성준이에게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찬찬히 들던 선생님도 칭찬을 해주자 성준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수민이는 겨울 풍경을 그렸다. 하늘에선 눈이 펄펄 내리고, 눈사람이 서 있고 지렁이는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수민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근데 수민이는 항상 그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 같더라. 앞으로는 조금 서두르는 게 필요하겠다."

두 시간의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크레파스와 도화지 등이 어지러진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선생님이 사 온 음료수를 마시며 재잘 재잘 수다를 떨었다.

형제사 아이들이 그림 수업을 받는 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미술관'은 올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 두 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건 1~2달 단기간 교육이 아니라, 1년에 걸쳐 체계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광주시립미술관측은 3년 전부터 형제사에서 한 달



14일 광주시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이 열린 형제사에서 아이들이 그림 수업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형제사 방문 10개월 과정 체계적 수업 자원 봉사자 나설 미술인들 참여 절실

에 한차례씩 자원봉사를 해왔다. 보통 현장학습을 함께 진행하거나, 청소 등을 해오던 직원들은 올 초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도예가 이상목씨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위한 '도예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은 활흙을 직접 만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형제사측으로부터 후속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줄 수 있는냐는 부탁을 받았다.

"또래 친구들은 미술학원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림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미술 시간에 흥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대외 같은 별 나가면 절반 정도는 백지로 내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술관측에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

주셔서 감사하죠." 형제사의 정경아씨는 "그림 실력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들 그림 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는 류승하씨.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작업 등을 하고 있는 류씨는 미술치료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의 그림을 디카로 촬영해 주변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처음에는 특정 주제를 정하고, 딱딱한 커리큘럼을 마련해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생활 속에서 주제를 정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또 그날 그림을 그

리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죠."

류씨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 또한 행복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창기 두어 달 동안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나서만 하던 아이도 지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10개월 과정의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광주시립미술관은 3년 전부터 여름방학 기간에는 8주 과정의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성빈여사와 웅진육아원에서 진행했고 올해는 미술치료를 전공한 두명의 강사와 함께 9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현재 교육을 실시할 시설을 찾고 있다.

미술관은 또 이상목씨의 지원으로 새롭게 동지를 특 운영 미술관에서 농촌 지역 아이들과 정선지체 아이들을 초청, 도예체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봉사에 나설 미술가들을 확보하는 일이다. 미술관 예산이 한정돼 있는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많지만 쉽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계속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미술인들은 없는 상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달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만큼 직업자를 찾기 어려운 면도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임종영 학예사는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062-510-07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1천876억3천만원으로 2006년 1천840억1천800만원에 비해 1.96%(36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매세나협회의(회장 박영주)가 발표한 '2007년도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과 매세나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문화예술 위원회를 통한 지원(303개사)을 포함 총 403개사의

작년 기업 문화예술 지원액 1,876억... 1.9% 증가

조사결과가 반영됐다. 총 지원액에는 기업 자체 지원금 1천824억9천500만원과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51억3천500만원이 포함됐다.

지원 기업 수는 403개사로 전년(363개사) 대비 11% 늘었으나 지원 건수는 2천402건으로 전년(1천

382건)보다 24.5% 하락했다.

총 지원액 중 기업 출연 문화재단의 지원금액은 723억원으로 38.6%를 차지했다. 문화재단 중에서는 1위가 삼성문화재단이였으며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가천문화재단이 뒤를 이었다.

기업 중에서는 4년 연속 현대중공업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현대예술관 운영과 문화나눔사업에 지원했다. 2위는 삼성테크스코플러스, 3위는 SK텔레콤, 4위는 한화호텔이였으며 5위는 백운아트홀(광양) 등을 운영한 포스코가 차지했다.

분야별 지원금액으로는 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등 관련시설 운영 지원비인 인프라에 766억원, 서양음악 225억원, 문화예술교육 197억원, 미술 및 전시 115억원 순으로 많았다. /연필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법인담 자산주요소) 행복한 경매상담 ☎ 062-236-3400. 최고2만여건의 무료 경매정보 홈페이지 http://www.assetkorea.com. 전국2의수익률/신속한매도/세금계산서발급/권리분석,상담무료. 대표이사 010-7570-7525 (단위/만원). 근린시설/원룸상담. 아파트/빌라 상담. 주택/재개발 상담. 공장/토지 상담. 상가주택 상담.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핸 016-632-58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임대·교환. 매도·교환. 이전만해갈 물건. 부동산.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사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發·리서치 선인! 공인중개사 소영 김민호, 공인중개사 소영 김기영, 공인중개사 소영 김기영, 공인중개사 소영 김기영.